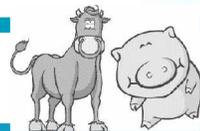


소· 돼지 가격전망



소

강보합세 유지



6월 말부터 이어져온 소비 성체가 7월 장마와 더불어 길게 이어져 오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한 쪽의 가격하락 없이 소 쪽의 등락만을 거듭하는 조합세의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산지 출하물량 감

소에 따른 것으로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한미 FTA타결 전후로 산지에서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고, 두 번째는 소 값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일선 농가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출하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향후 소 값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소비자가 유통시장에서 일부를 찾지 않는 한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빼있는 부분까지 모두 수입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추석전후는 돼야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빼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소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소 값은 한 쪽의 하락은 없는 가운데 강보합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돼지

약세지속 3,600원대 유지

돼지소모성 질병에 따른 산지 출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돈가는 6월 한때 4,000원대를 끝으로 급전직하해 작년 동기간에 비해 600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매년 장마라는 계절적 요인이 발생해 이로 인한 소비부진이 나타나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의 폭발적인 국내시장 잠식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의 양은 전년보다 35%나 증가한 13만 2천여톤 규모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출하물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시장의 공급과잉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비인기부위의 채고 누적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제 등 여러 가지 약제가 겹치면서 산지 출하물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지 않고 한 쪽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시장은 공급과잉의 감소와 소비 증가추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7~8월까지의 전통적인 모양식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로 돼지가격을 받들시킬 큰 요소가 보이지 않아 작년과 같은 4,000원대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돼지 가격은 평균 3,500~3,600원대를 축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간 미트뉴스 제공>